

마르코 복음서 6장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마태 13,54-58; 루카 4,16-30)

마태오 복음서 13,54-58 해설 참조.

- 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 2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지혜와 능력에 놀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도 예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심이 증명된다.

- 3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1) 목수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은 ‘장인’으로도 옮길 수 있는 낱말로, 나무만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을 다루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집을 짓는 목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姓) 대신 쓰였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는다. 아마도 마르코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그리하였을 수도 있다.¹⁾

2)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들 목수이고, 그의 동생들의 형제, 즉 한 사람으로만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배척하였다.

- 5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 6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1)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7쪽, 각주 3.

예수님의 고향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다.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구나 기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믿음의 힘은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일을 가능하게 한다.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마태 10,1.5-15; 루카 9,1-6)

6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7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을 둘씩 파견하신 것은 증거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제자들은 서로 협력해야 함을 명하시는 것이다. 한 사람의 증거보다 두 사람의 증거는 더 힘이 있고 확실하다. 또한 오로지 복음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 마태오와 루카 복음서는 ‘지팡이’와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되어 있으나, 마르코는 예수님 말씀을 팔레스티나 밖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거기에서는 청빈과 관계없이 지팡이와 신발이 필요하다.²⁾

2) ‘집’은 선교사를 받아들여 접대하는 집을 가리킨다.³⁾ 그리고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곳에 머물러야 한다.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⁴⁾

1) 마태오 복음서 10,5-15 해설 참조.

2) 하느님 나라가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요구된다.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8쪽, 각주 11.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8쪽, 각주 12.

4) 야고 5,14 :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 3)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고쳐 주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상징한다. 즉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뜻한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마태 14,1-2; 루카 9,7-9)

- 14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 15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 16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마태오 복음서 14,1-2 해설 참조.

세례자 요한의 죽음(마태 14,3-12)

- 17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 18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 19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20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 21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 23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 24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 25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

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 26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 27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 28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 29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마태오 복음서 14,3-12 해설 참조.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태 14,13-21; 루카 9,10-17; 요한 6,1-14)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둘씩 짝지어 각 마을로 ‘파견을 받은’ ‘사도’들은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보고하였다. 사도들이 행한 것은 기름 부어 병자를 고친 일과 회개하라고 가르친 내용이였다(12절).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듯이, 파견을 받은 자들 곧 사도들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한다.

-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 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존재로 쉼이 필요하다. 복음 선포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쉼’을 허락하신다. 곧 ‘피정’(避靜) 이다.

-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 34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1) ‘목자 없는 양 떼’의 표상은, 백성을 이끄는 책임을 진 지도자들의 태만을 가리킨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 백성의 목자이셨던 하느님 자신은 아니라 하더라도,⁵⁾ 모세나⁶⁾ 다윗의⁷⁾ 모습에서 보이는, 메시아적인 목자로⁸⁾ 당

신을 이해하셨음을 시사한다.⁹⁾

2)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자비와 목자로서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35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37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 ‘어느덧 늦은 시간’ 곧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활동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에 협조하도록 준비시키신다.¹⁰⁾

2) 한 데나리온은 농사일하는 품팔이꾼이 받는 하루 품삤이다. 유다교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빵의 양은 십이분의 일 데나리온 어치가 된다.¹¹⁾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9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40 그래서 사람들은 백 명씩 또는 천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1) ‘푸른 풀밭’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목자로서 이해하셨음을 상징한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잔잔한 물가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 주신다.¹²⁾

5) 예제 34,15 : 내가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시편 78,52-53 : 당신 백성을 양 떼처럼 이끌어 내시어 광야에서 그들을 가축 떼처럼 인도하셨다.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적들은 바다가 뒤덮여 버렸다.

6) 민수 27,15-17 :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7) 시편 78,70-72 : 당신 종 다윗을 뽑으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이끌어 내셨다.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오시어 당신의 백성 야곱을,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보게 하시니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8) 예제 34,23 : 나는 그들 위에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9)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0쪽, 각주 31.

10)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0쪽, 각주 33 참조.

11)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0쪽, 각주 34.

- 2) 군중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상기시킨다.¹³⁾ 이 조직은 하느님 백성의 이상적인 모습¹⁴⁾으로 간주되었다.¹⁵⁾

41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대교의 식탁 기도 중, 빵을 떼면서 바쳤던 찬미와 감사의 기도와 흡사하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교 성찬례 중의 기도와의 같은데, 성찬례에서는 이 의식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이 “찬미”는 빵을 나누는 의미를 드러내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선행을 곧 은총을 상기시킨다.¹⁶⁾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44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 명이었다.

- 1) 배불리 먹음은 풍부한 은총이다.
- 2) 광주리의 수가 사도들의 수와 일치하는데, 이는 사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충분하고도 남은¹⁷⁾ 음식을 모았다는 것은, 사도들의 중개로 아직도 다른 이들이 식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뜻한다.¹⁸⁾ 교회는 점점 자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백성의 수는 많아진다.
- 3)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다. 예수님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시다.¹⁹⁾

1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1쪽, 각주 35.

13) 탈출 18,21 :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18,25 :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삼았다.

민수 31,14 :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 화를 내었다.

신명 1,15 : 그래서 나는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우두머리로 내세워, 그들을 각 지파의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그리고 관리로 삼았다.

14) 1마카 3,55 : 그런 다음 유다는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오십인대장과 십인대장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지휘하게 하였다.

15)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1쪽, 각주 36.

16)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1쪽, 각주 37.

17) 2열왕 4,43-44 :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18)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81쪽, 각주 39.

19) 요한 6,51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물 위를 걸으시다(마태 14,22-33; 요한 6,16-21)

- 45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 46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 47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서는 혼자 물에 계셨다.
- 48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걸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 4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 50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51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 52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1) 마태오 복음서 14,22-33 해설 참조.

2)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달았더라면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제자들의 눈은 어두운 밤이다.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마태 14,34-36)

- 53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 55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 56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1)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는 이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함께하신다. 그리고 청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2) 마태오 복음서 14,34-36 해설 참조.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